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16차	일자	2021.03.29.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참고자료: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0	0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0	0	0	0	0	12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지금 학술제 진행 중. 지금 신청받고 있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3/25에 사회과학대학 단학대회 완료.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모집공고 이번주 중으로 게시 할 예정. 총학생회 산하특별자치기구 인복위, 성평위, 장인위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함께한 권리 가이드 라인 오늘 낮에 게시 완료. 다전공에 대해서 Q&A 진행하는 다전공 DATE 질문받는 구글 폼 오늘 게시함.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인문대학	이번주 금요일에 입학대회 개최 예정. 리크루팅 관련해서는 현재 36명 대상으로 면접 완료. 인문대학 유튜브 활성화 사업 실시하고 있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학생회 리크루팅 완료. 단학대회는 4월 말이나 5월초에 예정.
동아리연합회	4/9 전통대회 예정. 3/31에는 재등록 서류를 마감 할 것이고 추가로 3/31에 해야하는 전화심사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4/30로 미룸. 굿즈업체선정이 현재 완료됐고 현재 굿즈 생산에 계속 협의 중.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공동행동) 3.2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 간담회 참여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총학생회 1분기 간담회 진행 : 3월 31일 18시 30분 ~ 20시 30분. ZOOM 화상진행

중앙집행위원회	(교육자치)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4주차 피드백 전달 완료
	(교육자치, 전략정책) 학문연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 진행 중
	(연대사업) <산돌구름> 제휴 공지 완료, <더잠> 제휴 진행 중
	(전략정책) 중대중심 리뉴얼 이벤트 진행 완료

	(홍보소통) 20학번 대상 푸앙 힐링키트 3월 29일 ~ 4월 4일 신청 (2850개)
산하위원회	(문화위) 2021 LUCAUS "CAU:nt Down" 준비 중
	(성평위, 장인위) 학생대표자 대상 인권교육 준비 중
	(졸준위) 졸업앨범 업로드 완료. 업제미팅 진행 예정.

총: 질의사항 있으신지?

인문.정: 질의사항은 아니고 화면공유를 안건지로 바꿔주실 수 있으신지?

총: 네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인문.정: 화면 공유가 지금

총: 네네 감사하다. 푸앙이 관련 개수가 2580개가 아니고 2850개로 정정하겠다. 네 회의진행하도록 하겠다.

3 논의안건

1.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및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학교 측 담당자 논의

담당자: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

*참고자료

총: 화면 공유 해드리겠다. 첫 번째로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인데 리더스포럼 단위요구안 전달할 때, 3월 중으로 담당자와 미팅하기로 한 것 다들 기억하시는지? 그래서 담당자 이우학 주임님을 모셨고, 이 안건을 최초로 상정해주신 단위가 어디였는지? 인문대였는지 사과대였는지?

인문.정: 단위요구안 관련되서는 인문대학이 삽입을 했고,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사과대에서 지난 회의 때 얘기해주신걸로 기억하고 있다.

총: 네 그러면 최초로 안건 상정해주신 인문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시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

인문.정: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저희가 단위요구안에서 먼저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를 폐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학칙상 존재하는 선거지도 내규는 각 학생자치기구의 현행 대표자 선출관련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에는 후보자 자격기준을 4차학기 이상 등록된 재적생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인문대 회칙상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각 학생자치기구 선거제도가 매년 실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내규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과대, 학과별 세칙과 학교 선거지도 내규간의 괴리가 커져서 불편과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또한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독립성을 보장받아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를 폐지 또는 부분 수정할 것을 단위요구안에서 요청 드렸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작년 단위요구안에 인문대학 단위요구안에서 제기를 드렸고, 작년에도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올해 추가적으로 인문대학에서 한 번 더 단위요구안에 삽입을 하였다.

총: 네 감사하다. 그러면 이우학 주임님께서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 네 일단 인문대 학생회장님 말씀 잘 들었다. 인문대 학생회장님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2016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어떤부분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또한 학생자치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관련되서는 이 선거관리 지도위원회 내규가 실제로는 학생회칙에 우선되어서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 우선되지 않고는 발동이 되거나 실제 적용된 예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 학생회 회칙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느정도 부합할

수 있게끔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는 공감을 한다. 그리고 인문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 지나면 학생회 내부적으로도 학생회칙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좀 특이한 사항인데, 총학생회의 회칙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되려면 4차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원래 인문대 회칙에서도 4차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뭐 특이하게 말씀드리면 총학생회 회칙이 어떤 단과대학의 특별정보다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회칙의 기본의 가장 큰 골자의 위에는 총학생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에 어긋나는 단과대별 특색은 선거관련 회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혼돈을 더 줄 수 있음을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문대같은 경우에는 재적생 자체를 투표권을 부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 투표할 때는 재적생 관련되서는 투표권이 없고 재학생에 관련되서는 투표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단과대별로 특이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아마 학생대표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는 수정사항이나 또는 그쪽에서도 한번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선거자치기구의 선거지도 내규에 대해서는 현실을 조금 반영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갈피를 잡아보겠다. 학생자치기구를 지원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을 가진 내규이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도록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해보겠다. 이상이다.

총: 네 제가 질문드리겠다. 혹시 내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당연히 될것인지?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 네 당연하다. 저희는 이게 최종적으로 발동되었던 것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사항으로 한번 발동되었던 게 최근 일인데 그것도 심지어 발동년도가 2015년이다. 6년간 한 번도 발동된 건 없고 선거지도 내규를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후보자들 또는 당선자들을 지원하고 선거를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었다. 실무자로서 근6년동안 있으면서 그렇게만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가 있냐면 '선거를 지원해야한다.' 그리고 '당선자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에서 공로상을 부여한다.' 제가 이 내규 중에서 유일하게 6년간 쓴 조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자치권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으로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생자치를 위협한다는 것은 사실 요즘 현실에는 맞지 않다. 그럴 일도 일어날 리가 없다. 2015년도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사항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발동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상이다.

총: 네 인문대학 학생회장님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인문:정: 네 저희도 현재 이 선거지도 세칙이 이 자체로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팀장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선거지원적인 측면에서는 내규 뒷부분에 가면 선거지원에 대한 내용, 학교 측에서 학생회 선거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팀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방향이다.

총: 네 해당 내규와 관련되서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질의 없으신지?

총: 네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와 관련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차후 중운위 회의를 통해서 학생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내규개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다. 다음으로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이다. 해당 내규와 관련된 안건을 최초로 상정해주신 단위가 어디신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난다. 혹시 사과대였는지 인문대였는지?

인문:정: 아까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단위요구안에서는 제가 하고,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사과대 회장님이 해주셨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있는데 저희 애초에 단위요구안 작성할 때, 인문대랑 사과대가 해당안에 대해서 단위요구안을 작성을 했고 중국에는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선거지도 내규와 그리고 대자보 관련 회

칙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뭔가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되어서 이제 인문대랑 사과대 단위요구안에서 빠진 것인데 왜 해당 발의 배경을 인문대 회장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져온 안이기 때문에 총학생회장님께서 해주시는게 맞는 것 같다.

총: 네 제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기도 하면서 사과대 회장님이랑 인문대 회장님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시다. 아무래도 저보다 최초로 안건을 상정해주신 학생회장님들께서 더 자세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실거라 생각을 하고 발언권을 넘겨드린 것이다. 네 혹시 인문대 학생회장님 설명 가능하신지?

인문.정: 네 그럼 그냥 제가 하겠다. 교내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는 6조 3항인지? 조금 확대해줄 수 있으신지? 네 4조 3항이다. 4조 3항을 봐주시면 해당 조항의 경우 이제 게시물, 특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게시하는 대자보에 대해 내용에 따른 검인 거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 중에 정치적 사안이라든지, 면학분위기 저해 같은 표현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대자보 게시 문화가 학내 안전한 토론 문화를 만들고 민주적인 학생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삭제 및 세칙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문대학의 입장이고 인문대학 내의 인문대운영위원회에 요구를 했을 때 도 해당 조항은 삭제를 하되 2항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 설명은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총: 네 안건설명 감사드린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담당자분의 설명 듣겠다.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 그런 충분한 이런 질의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의 자체에 대한 질문은 제가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개정된 관련 시행세칙이고 이 시행세칙을 수정함에 있어서 제가 참여자로 들어갔다. 여기에 시행세칙에 주무부서는 총무처 총무팀이다. 저는 학생처 학생지원팀이고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던가 그다음에 자치권들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지가 있으면 제가 그런 것을 수정하고 검토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4조 3항을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적 또는 정치적 내용에 대해서 이 시행세칙을 만든 목적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일단 상업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 있는 동아리는 300개가량 되고, 학생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학생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라 상업적 성격을 띠는 단체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인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상업적인 목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정치적 내용은 이것은 해석함에 있어서 유권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질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유일하게 6년간 그러니까 이게 개정되기 전이나 후나 제가 이 학생지원팀에 게시물 관련 담당자로 있으면서 거부사항이 딱 한건 있었다. 언제나면 프리홍콩사태 인데, 프리홍콩사태일 때 교내에 있는 민주당학생자치위원 학생들이 와서 대자보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프리홍콩에 참여한다는 대자보 관련된 내용을 두 번째 받아갔고 세 번째 왔을 때에 중국 유학생회의 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받아가고 세 번째 받아가기 전에 그때 그 중국 유학생들이 자기네들 나라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항의하는 대자보를 서론장을 뽑아왔다. 이것을 붙이려고 왔길래 그 당시에 타 학교 내에서도 한양대를 비롯한 타 학교 내에서도 교내에 폭력시위가 비슷하게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재를 시킨 적이 있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받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인 유학생것도 찍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좀 참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중국인 유학생 회장이 했던 말이 중앙대 학생들이 더 이상 붙이지 않으면 붙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설명을 잘 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세 번째 찍으러 왔을 때는 제가 유일하게 거부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 내용으로 찍지 않

은 게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태까지 5년을 이걸 운영해오면서 유일한 내용이다. 정치적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발동되려면 충분한 협의라던가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건 매번 케이스마다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서는 학생 구성원이나 그 단체의 장과 협의한 다음에 이 조항들을 적용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2번은 뭐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설명 잘 해주신 것 같고 한 번도 특정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건 아까 말했던 명예훼손적인 측면에 대자보가 붙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어떤 상황마다 충분한 내용의 설명과 그다음에 증거를 남겨놓고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어떤 규정이든지 완벽하게 구성되어있는 조항이나 내규는 존재할 수 없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큰 바운더리를 놓고 거기에 맞는 유권해석을 저희가 적용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이런 내용에 무분별하게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중운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문제 제기라던가 내용을 제시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참고로 어떤 내용의 대자보든지 여기와서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한 번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의 목적도 학생을 지원하는 지원팀이지 학생을 검열하거나 검인하는 검열의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아까 수많은 단체와 외부단체들이 게시판에 더럽히거나 학생들을 오히려 행사라던가 그런 홍보물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링하는 작용으로써 존재한다고 보시면 된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게시물이 조금 붙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3월달에만 나간 대자보의 개수가 2400개이다. 그러니까 교내에 3월달에만 2400개의 포스터가 붙히지게 된다. 그러면 교내 내부적으로도 규정이나 내규가 없게 되면 쉽게 말해서 뭐 돈이 많거나 돈이 많은 단체같은 경우에는 부분별로 포스터와 대자보를 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매수제한과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총: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 네 뭐 질의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신다고 방금 주임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내규, 시행세칙 안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아예 명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게시물을 뽑아온 거는 민사상으로 그 게시물 자체가 그 개인의 재산권이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붙이냐 안 붙이냐는 저희가 뭐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거는 뭐 여기에 근거를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점인데 거부할 때는 거부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어있고 그분들이 이걸 왜 못 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당연히 하게 되어있다. 그 사이에서 당연히 논의가 발생이 되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정말 붙이고 싶은데 검인을 받지 않고 붙인다. 그럼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떼어질 수 있을지언정 붙이는 것 자체를 방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설명하고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넣는 것 자체가 시행세칙의 격을 떨어뜨린다 해야 하나? 당연한 내용이다.

총: 답변이 되셨는지 부총학생회장님? 네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부총: 질의는 아니고 의견 있는데, 그럼 시행세칙 같은 경우도 이전에 내규 논의한 것과 동일하게 중운위에서 의견서를 한번 제출 드리면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는지?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서가 총무처 총무팀이다. 개정이 18년도에 됐고 그 전에는 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약간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수정을 한 내용이다. 실제로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학생지원팀이 운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들은 솔직히 뭐 제가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내규 같은 경우에는 학생처 학생지원팀이 주무부서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부총: 네

총: 네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담당자이신 이우학 주임님은 퇴장하셔도 좋다. 고생하셨다.

학생지원팀 이우학 주임: 네 너무 고생하셨다.

2. 학생총회 소집 플랫폼 구축

* 월요일 명단 검증 완료

- 본교 학부 재적생 1/8 이상 수용
- 쌍방향 소통
- 참가자 실물 확인

총: 현재 명단 검증은 오류가 좀 많아서 내일 오전중으로 완료 될 것이라고 전달받았고 제가 정확한 재적생 수를 여쭙봤더니 25265명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를 1/8로 한다면 3158.125명인데 회칙상 1/8이상 학우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159명이 참석을 해 주셔야지 개회가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전 중운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zoom계정을 여러개 구매해서 동시송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홍보 방안이라고 함은 전학대회와 동일하게 단운위 별 공지를 공유를 요청 드리고 포스터를 제작 할 예정이다. 또한 진행 방식은 오픈채팅방에서 본인 확인 후 zoom회의 링크 전달을 통해 중앙대학교 학우분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신원확인 진행 할 예정이다. 혹시 학생총회 소집 관련 질의나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당일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학생증 검사하시는 걸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신다는 것인지?

총: 네 맞다.

인문.정: 그럼 오늘 명단 검증이 완료됐으니까 오늘로부터 3일 내로 개최되는것인지?

총: 오늘이 아니고 이 학생총회 연서명 명단에 오류가 좀 많아서 저한테 보내주신 명단에 오류가 조금 많아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고, 내일 오전 중으로는 무조건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만약 화요일 오전에 명단을 받게 된다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총회를 소집 할 예정이다. 허나 만약에 내일 중 이제 명단을 받았을 시에 500인이 안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탈곡기로부터 그 명단 재송부 받을 예정이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부총: 네 질문관련 질의는 더 없으신지?

총: 네 그럼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학생총회 개최시간은 18시 30분으로 하되 트래픽 오류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오실 학우분들을 기다리는 유예시간을 어느 정도로 뒤야 할지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3000여명의 학우분들이 들어오실 경우에는 참여를 하는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집 시간을 18분 30분으로 하되 어느 정도의 시간을 유예시간으로 두어 소집을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한 30분 정도면 어떨까 싶다.

총: 네 그러면 소집 시간은 18시 30분으로 하되 19시까지 만약 개회의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소집이 안 되는걸로 판단을 하자는 것인지? 네 알겠다.

부총: 저는 18시는 소집을 기다리는 것뿐이 아니라 만약에 인원이 왔다고 했을 때 개회 자체를 30분안에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게 이 zoom이 한 번에 들어가면 끊기기 때문에 인원을 분산시켜서 입장을 해야하는데 최대 10명을 잡더라도 300번을 시켜야 된다. 30분은 좀 짧다라고 생각한다.

총: 그럼 그전에 시간을 늘리면 될 것 같다.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 18시 30분에 소집을 하면 17시 30분부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려도 되는지?

총: 네

인문.정: 저도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미리 링크를 배포해서 사전에 들어오시게 하시면 이제 6시, 7시, 뭐 5시 반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두 분 다투지 마시길.

총: 다투게 아니라 음소거가 해제된 줄 몰랐다. 다른 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만약에 미리 입장을 하더라도 6시 반에 딱 했을 때에 트래픽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1시간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7시 반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개회가 안 되서 학생총회가 취소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전학대회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전학대회 전환은 추후에.

총: 네 19시 30분까지 유예시간을 두자라고 말씀해주셨다.

부총: 네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거나 이미 제안된 시간에 대한 동의/비동의를 표현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 1시간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3159분 정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 zoom이 300명 기준 \$199다. 혹시 zoom 몇 개 구매할 예정이신지?

총: 1000명 수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서 여러 개 구매 할 예정이다.

사과.정: 네 알겠다.

자연.비: 자연대 1시간에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질의가 있는데 그러면 오픈채팅으로 확인하는 것은 17시 30분부터 확인을 시작하는 것인지?

총: 네 그렇게 하겠다.

간호.정: 네. 유예시간 1시간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학대학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총: 네 알겠다. 그러면 17시 30분부터 초대 링크 공유해드리겠다. 또한 소집 시간은 18시 30분으로 하되 트래픽과 추가인원 수용을 위해 19시 30분까지는 소집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 두 번째이다. 안건 상정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자분들 의견 주시기 바란다.

부총: 안건을 상정한 담당자가 안건을 해설하기 위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느냐는 요청을 주셨다.

인문.정: 저는 인문대학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안건을 상정해준 단체가 탈곡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탈곡기 측에서 해설을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회칙이랑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설명 주실 수 있는지?

총: 네 학생총회, 그리고 전학대회 발언권과 관련된 회칙은 없다. 네 그래서 중운위 분들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다.

인문.정: 혹시 작년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탈곡기 측에서 연설을 받아서 제안 설명을 할 때 혹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따로 의결을 진행했는지?

총: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문.정: 그렇다면 그냥 의결 없이 안건 해설은 탈곡기 측에서 해주는 것에 인문대학은 동의한다. 발언권을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네.

경경.정: 혹시 발언권에 시간제한 같은 게 있는지?

총: 발언권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공.정: 공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는 건지?

부총: 근데 학생총회가 저희가 전학대회를 하면 보고안건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학생총회를 열 때는 같은 의제를 가지고 동의하는 학우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글썄요 질의답변이 이뤄진다면 담당자나 중운위에게 누군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총: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네 그러면 의결 진행하지 않고 안건 상정자에게 안건 상정에 대한 배경 설명할 수 있는

사과.정: 사과대 학생회장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 20년도 2학기 학운위 속기록 찾아봤는데 탈곡기에서 오신 연서명 주체 1인한테 발언권 부여한다로 의결 진행하고 발언권 부여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무튼 작년에 의결해서 발언권 부여했다는 점 정정되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 네 근데 학생총회는 통과안건에 나와 있는 학생총회 진행 규칙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운위분들의 해석 여쭙본 것 이고 말씀해주시 대로 발언권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발언권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고 안건을 상정해주신 상정자에게 해당내용 전달하도록 하겠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논의안건 3번으로 넘어가겠다.

3. 교학부처 간 간담회

* 4월 6일 교무위원회 학사 결정 이전 학생대표자-학교본부 간 간담회 추진 : 4월 1일 목요일 오전 진행 예정

- 논의내용 : 8주차 이후 학사운영방식, 강의 질 향상 대책

- 단운위 내 의견 수렴 요청

총: 4/1(목) 오전 10시반에 학생대표자, 학교본부 간 교학부처 간 간담회가 진행이 된다. 저번 중운위 회의 때 단운위 의견 수렴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8주차 이후 학사운영방식과 강의 질 향상과 관련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단운위 의견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 먼저 말씀드리겠다. 간호대는 저번과 동일하게 phase2 유지 의견이다. 실습이 중요한 단위이기도 하고 비대면 연장이 시기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과 동일한 입장이다.

총: 현행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이신지? 1학기 전체를?

간호.정: 네

총: 네

경경.정: 경경대도 1학기 전체 현행유지하는 것에 의견 모아졌다.

인문.정: 인문대도 현행 유지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다만 강의 재사용이라든지 온라인 환경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 측에서 대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강의 재사용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에게 뭐 권고를 한다든지 패널티를 부여한다든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단운위의 생각이다.

총: 네 패널티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신지?

인문.정: 패널티라고 특정할수는 없겠지만 교수에게 어느 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는 저희 단과대의 생각이다.

총: 네

사과.정: 사과대는 현행 유지로 학사운영방식 논의하였고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관련해서는 비대면 평가 시행 원칙으로 하고 대면평가 시행 시에는 원거리 거주생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는 방안으로 의견 모았다.

총: 실험실습도 다 포함이신지?

사과.정: 실험실습 그 학사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쭙보신 것 맞는지? phase2로 현행과 같이 학사유지로 의견 모았다.

총: 그러면 만약에 이론수업인데 대면시험을 강행한다고 하면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

사과.정: 네 맞다.

총: 네 알겠다.

통공.정: 공대 말씀드리겠다. 현행처럼 비대면 원칙으로 하되 공대는 실험 및 실습수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부장님 및 대학장님 판단 하에 실험 및 실습수업은 대면을 허락해주는 것으로 의견 모아졌다.

총: 네 알겠다.

자연.비: 자연대도 우선 현행유지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아까 인문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의를 재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세부점수 공개와 같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네 사범대

사범.부: 네 사범대도 지금 현행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다.

총: 네.

사범.정: 사범대 의견 조금만 더 보태겠다. 현행유지 진행하는데 지금 실습과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 내에 특수한 실기 수업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실기수업 관련해서 자유롭게 신청이나 의견 수합이 가능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따로 전달해 드리라고 전달을 받아서 그것 또한 전달 드린다.

총: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의 대면수업 여부는 학생회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 뒤에 결정을 해라라는 말씀이신지?

사범.정: 네 맞다. 체육교육과의 의견이 그렇다.

총: 네

부총: 네 그러면 말씀드리려던 것 계속 드리겠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phase단계를 현행 유지하는 것, 여기에는 이론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 실험 실습수업 운영은 학생들과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해서 결정할 것, 그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는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 평가 시 학교 혹은 그 대면 평가를 결정한 교수자가 학생들의 이동이나 주거관련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그다음에 강의 재사용이나 강의를 업로드 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패널티 등을 부여하는 등 학교에서 책임을 질 것 다섯가지를, 제대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될 것 같다. 근데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에 명문화된 요구사항을 한번 정리하고 이게 외부로 한번 발행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 그러면 방금 내용을 미리 포함을 하고 그 총학생회장님이 회의가 끝나면 게시글을 하나 올리드릴 것이다. 그러면 학사운영관련 중운위 요구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내용 적어주시고 내용 정리되면 저희 차원에서 간단한 카드뉴스정도 발행하고 이제 간담회는 되는 인원과 같이 들어갈 것 같다. 카드뉴스와 함께 그 문서양식에 요구안도 포함될 것이다.

총: 네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나고 중운위분들의 의견이 다 수합이 되면 총학생회장단이 교무처장을 최종 수신자로, 그리고 교무위원회 각 학장님을 최종수신자로 한 요구안을 작성하겠다. 요구안을 작성을 하고 대표자분들께

피드백을 받고 간담회 진행 카드뉴스와 요구안을 SNS에 발행 한 뒤에 간담회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네 알겠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이다.

4. 학생대표자 대상 인권교육 진행

- * 성평등교육, 장애인권교육 합동진행 예정 : 교내 인권센터 전문연구원(성평등교육) 및 외부강사(장애인권교육) 초빙
- 일정제안 : 4월 8일 목요일
- 단운위 내 의견 수렴 요청

총: 부총학생회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네 일단 변동사항이 생겨서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4/8을 가안으로 잡았는데 여기 장애인권교육을 담당하실 외부강사 일정이 문제가 생겨서 5월 초로 인권교육을 아예 지연시켜야 될 것 같다. 담당하는 위원회랑은 모두 이야기가 완료됐고 그래서 5월쯤에 전학대회 저희 하는 주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회의 부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학대회 일정을 확정하는 같은 날에 인권교육 날짜도 확정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논의 할 사항이 없을 것 같다.

총: 네 질의사항 없으시면 기타안건으로 넘어가겠다.

4 기타안건

총: 상정하시고 싶은 안건이 있으시다면 상정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아까 논의안건 1번에서 논의를 했지만 선거지도 내규랑 교내 홍보물 게시관련 세칙에 있어서 일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 자체가 좀 수렴이 되어야할 것 같다. 그래서 각 단위별로 단위별 학과/부 단운위 논의를 거친 후에 다음 주에 중운위 최종 수정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 측에 협의체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린다.

총: 네 좋은 의견이다. 우선 각 단과대별로 논의안건 1번과 관련된 내용 논의 하시고 차후 중운위 회의에서 중운위 차원의 의견 수합하도록 하겠다. 의견수합이 완료된 뒤 주무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총: 안건 상정이 더 없으시면 안내 하나 드리겠다. 일전에 공유해드렸고 피드백을 진행했던 가이드라인을 이제 배포하게 되는데 일단 담당 단위 sns에는 게시를 했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이드라인 홍보물과 홍보글과 파일을 중운위 공지방에 공유를 드리겠다. 그러면 각 단위에서 일단은 실무진에게 먼저 내용을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각 단위 단톡방이나 sns로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과대 마지막으로 질의 있는데 혹시 전학대회 플랫폼 관련해서 저번주에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플랫폼이 확정이 되었는지?

총: 그 플랫폼은 이번 학생총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 저희도 지금 3000여명의 학우분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아마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총회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제가 까먹으면 한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네 감사하다. 네 추가안건 없으시면 중앙운영위원회 16차 회의는

사과.정: 진짜 마지막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려서

총: 아니다.

사과.정: 학생총회에서도 그 통과안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발언권은 학생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총회인 만큼 발언권을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3000명 이상의 학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토론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발언하기 전에 채팅창을 통해서 자기 단과, 학과, 성명을 적고 이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규칙은 정해져야 3000명이 있는 학생총회라는 공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가능 할 것 같아서 통과안건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린다. 끝이다.

총: 네 알겠다. 제가 통과안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네 추가 안건 없으시면 정말 폐회하도록 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